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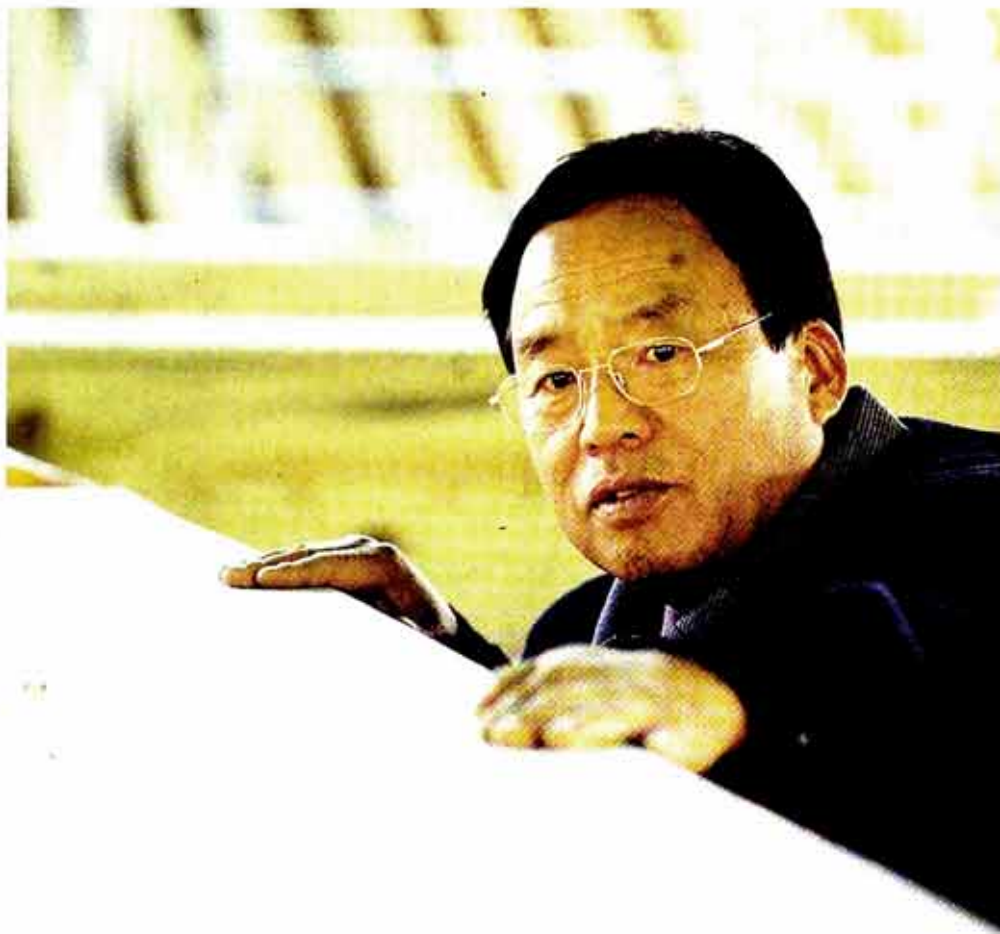
산문박의 1주년

무형문화재 대목장 신응수씨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멋과 아름다움은 지붕 추녀의 부드러운 곡선이나, 기둥과의 조화, 처마 등의 곡선미에서 볼 수 있을 유려한 선(線)에서 나옵니다. 날렵하면서도 우아한 곡선은, 그러나 어떻게 만들었다고만 해서 그러한 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옥은 맞선년 미리 알아서 선을 찾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정성이 중요한 것이죠."

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大木匠) 신응수씨(59)는 최근 자신있게 이러한 선을 표현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전통 목조건축 하나를 완성했다. 바로 지난해에 낙성식을 가진 단양 구인사의 대조사전이다. 대부분의 절이 시멘트로 지어진 것을 아쉽게 생각한 현대종이 '이 시대의 국보급 문화재'를 짓겠다는 의력으로 종단의 총력을 기울여 지원한 대조사전의 도편수를 전통건축의 1인자로 알려진 신응수씨가 맡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근래에 보기드문 수작(秀作)불사로 자타가 공인하는 대조사전은 국내 목조건축으로는 최고 높이인 27m의 3층 다포집인데 근간을 이루는 목재부터 우리나라 것만을 사용했다. 최고의 목재로 알려진 태백산 300백년된 적송(赤松) 50만개가 들어갔다. 대나무처럼 굽은 16.5m의 아름드리 고주(중심기둥)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황금자기 기와나 섬세한 금단청, 웅장함과 화려한 단청 등 하나 하나가 모두 정성과 빼어난 솜씨를 느끼게 하는 대조사전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우아하면서도 단아한 전통건축의 선을 그대로 보여주며 조화와 균형을 자랑한다. 같은 3층이면서 안으로는 하나의 통층으로 된 이 건물에 위해 신응수씨는 금단사 미륵전을 여러번 가 보았다.



2층 신축 청덕궁 연경당 보수 공사 등을 연이어 해나갔다. 좋은 스승 밑에서 묵수로서 갖춰야 할 공부와 함께, 자연과 건물의 조화를 생각하는 '심안(心眼)'도 저절로 체득이 됐다. 빼어난 눈썹미와 타고난 재주, 여기에 성실함과 꼼꼼함을 인정받은 그가 처음으로 독립해 한 일이 75년 수원 화성의 복원공사다. 장안문 응성문루 복원, 화양루 등 1차 복원때 도편수를 맡아 직접 고건축을 복원, 고건축의 실체를 공부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면서 또 기량도 인정받았다. 스승 이광규선생은 장안문 공사를 둘러보고는 아무말없이 가는 것으로 인가를 해주었다.

신응수씨는 이후 여주 영릉 보수, 청덕궁 중건, 경복궁 복원, 경주 안압지 건물 3층 복원, 서울 한국의 집·청와대 대통령 관저 신축공사 등과 불국사복원, 청룡사 대웅전, 단양 구인사 사천왕문, 무량사 극락전 보수, 진주 월경사 대웅전 신축 등 크고 작은 수많은 문화재의 복원과 신축 등을 해왔다. 그러나 그는 복원을 위해 문화재를 해체할 때마다 대부분 화를 참을 수가 없다.

"안동 봉정사 대웅전 하면 우리나라에 몇 안되는 최고(最古)의, 아주 귀하게 귀한 고건축물인데요. 그걸 해체해 보니 기가 막입니다. 전에 보수를 너무 엉망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밑에 있던 목수들을 버스도 싣고 내려가서 직접 보여주었어요. '봐라, 이렇게 귀한 건물을 이렇게 엉망으로 보수를 하다니, 너희들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교훈의 산현장을 보여준 셈이지요. 대웅 눈속임으로 아무렇게나 한 잘못된 복원이 얼마나 빼어난 지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그곳뿐이 아니에요. 복원을 위해 풀어놓고 보면 엉망으로 해 놓은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송으로 눈속임을 한데가 있지 않나. 얼마 안된 단청에 얼룩이 가지 않나... 지은지 20~30년밖에 안됐는데 서까래를 갈아야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소리를 높여 그동안의 잘못된 문화재 복원관행을 비판한 그는 특히 불자들의 귀여우며 참배장소인 법당의 신축이나 복원때 스님들이 철저히 감독해 줄것을 강조했다. "어느 곳에 있는 사찰이야말로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의 공유재산 아닌가? 또 지나는 객스님일지라도 불사하는 것을 보면 관심있게 지켜보고 지적할 것은 꼼꼼히 지적해야 합니다. 또 잘 모르시거나 바쁘다면 전문가를 데려다 감독

"무량수전 같은 건물 지어야죠"

구인사 대조사전

秀作불사된 까닭

단청은 단청대로

기와는 기와대로

장인만난 시절인연

"부석사 무량수전이나 금단사 미륵전 등 시대를 대표하는 빼어난 건물에는 그 건물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느낄 수가 있어요. 건물이란게 목재 같은 재료도 좋아야 하지만 역시 어떤 마음을 갖고 임했는가가 중요하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먼지가

끼거나 일에 소홀함이 있다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나중에 건물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전통건물이 몇백년이 지나도 원형 그대로 견제하는 것은 균형과 조화를 생각한 옛날 장인들의 안목도 안목이지만 작은 일도 소홀 안한 세심한 정성 때문이라고 봐요."

구인사의 대조사전 같은 건물이 '잘 지었다'고 칭찬을 듣는 것은 돌심양면으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은 종단과 목수의 마음이 맞았다고 볼사를 조금하게 서투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와는 기와대로, 단청은 단청대로, 석재는 석재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명장으로 알려진 장인들이 최고의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사찰인연이 맞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목장 인간문화재로 자타가 공인하는 도편수(목조건축의 책임자)지만 신응수씨가 묵수일을 시작한 것은 나이 16살때. 송고 배고픈 시절, 그는 무작정 상경해 삼촌 신응수씨를 따라다니며 나무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삼촌은 한옥공사를 주로 했는데 삼촌은 그곳에서 불심부부 영장심부름을 거쳐 대패질, 들질 등 목수가 되기 위한 과정을 하나 하나 배워갔다. 먹는 것조차 변변치 않은 시절이었지만 묵묵히 참고 한 단계 한단계 열심히 배웠다. 60년, 당시 몇 남지 않은 조선조 궁궐목수로서 우리나라 고건축의 최고의 권위자 이광규선생의 문하생으로 들어갔다. 이광규선생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그는 신촌 봉인사 불사를 시작으로 이광규선생을 따라다니며 부편수로서 불국사 1차 복원, 서울 청룡사 대웅전, 자연농원내 호암장, 경주 미추왕릉 삼문

집은 그시대 얼굴

'화려-크게' 보다

'자연과 조화' 중요

무너지는 건축물

속이 비었기때문



○대목장 신응수씨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문화재 건축을 해왔지만 구인사 대조사전이야말로 생애 최고의 대표작이 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였다"고 토로한 현대종 구인사내 대조사전, 외 7포 내 11포의 3층 다포집으로 전체를 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로 짜맞추었다.

을 시켜야 합니다." 이에 덧붙여 주지스님들이 사찰불사를 꼭 일기내에 끝내려 조금씩 하지 말고 장기간 안목으로 꼼꼼하게, 그리고 무조건 크게만 하지 말고 그 건물이 위치한 자연과 조화를 이뤄 추진하기를 주문했다.

"무슨 일이든 쉽게 하려는 요즘 세대와 마음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이 짓는 건물은 아무리 화려하고 돈을 많이 들인 것이라도 빈 겉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삼중 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은 한 상징이예요.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빈 것이 얼마나 지탱할 수 있었어요?"

목심과 물질만 채우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이 살고 일하는 건물에 부형 안될 수 없다. 집이란 바로 그 시대 사회의 반영이고 그 시대 인간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체적인 집합체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담긴 집을 짓도록 해야합니다. 목수는 돈을 좇으면 좋은 집을 지을수가 없어요."

지난 9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으로 지정받아 명실공히 고건축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되었지만 그는 자신을 경계하고자 늘 자신을 돌아본다. "내가 최고다 하는 자만심과 오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해도 어딘가는 허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해야 발전이 있지요."

40여년을 묵수로서 수많은 건물을 지어왔고 요즘도 경북 공 근정전, 덕수궁 중화전, 청덕궁 구선원전과 강릉 객사문·재주도관아 등의 복원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신응수씨. 그는 늘 '부석사 무량수전'을 마음에 담고 산다. 간절하면서도 역학적이고 상충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갖추었고 동시에 자연과의 조화가 완벽한 무량수전 같은 건물을 짓고싶다는 의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글=이경숙 기자(gisee@buddhania.com)
사진=고명태 기자(ybgo@buddhania.com)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꽃감야채꿀무침

"아이고, 저 스님 죽네, 저 스님 죽어!" 어느 마을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머물던 동산스님은 밤새 토하고 싸는 바람에 쓰러지고 말았다. 관세음보살님을 만나 무지개가 피어난 별천지로 들어가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바늘로 손발을 따서 피를 내고 주물러서 의식이 돌아왔다.

"스님,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소?" "오대산 상원사까지 가는 길인데 김용사를 잠깐 함께 드리러 온 것인데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제 낮에 선산에서 밤 한 그릇 시주 받아서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스님은 회복되는 듯 싶었다. 남에게 신세지기를 몹시 꺼려하던 동산 스

만성적 설사·출혈성 질환 '효과'

님은 밤에 마을을 빠져나왔으나 그만 기억이 없어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머님의 품속에서 먹던 젓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감로수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다시 단잠을 자고 난 스님의 얼굴에는 핏기가 풀었다. 온몸에 열이 내리고 설사가 멈춘 스님은 자기가 무슨 약을 먹고 회복되었느냐고 물었다. 마을 노인인 머리 끝에 남아 있는 꽃감죽을 가리켰다. "그랬었구나!" 선산에서 고약한 보살한테 밤 한 덩이를 시주받아 국에 말아 공양

할 때 심한 비린내가 났었다.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 먹었으나 그것이 바로 상한 민물계였던 것이다. 계 식중독에는 감이 약이었으나 꽃감죽은 동산 스님의 복음을 구한 것이다. 마을에서 노인이 꽃감을 한 자루 싸주며 죽을 끓여먹으라고 내놓는 게 아닌가. 상원사에 도착한 동산 스님은 한양 스님과 함께 꽃감죽을 끓이며 겨울 찬바람을 녹였다. 단, 계와 꽃감은 상극이니 주의해야 한다.

■ 약성식 연구가, <신사에 기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 재료** 꽃감, 당근, 양상추, 피망, 굴, 감초, 붉은 소금, 잣가루
- 요리법** ① 꽃감, 당근, 피망을 적당한 크기와 굵기로 채 쉰다. ② 양상추는 먹기 좋게 찢어놓는다. ③ 굴과 감초, 소금을 잘 섞어 양념소스를 만들어둔다. ④ 위의 재료를 소스에 버무리려 잣가루를 곱고요 뿌린다.
- 효능** ① 노인의 토혈, 객혈, 만성적인 설사, 출혈성 질환의 치료와 지혈에 좋다. ② 과일의 왕으로 단박질, 지방, 당분, 전분, 요오드, 칼슘, 비타민 C, 인이 풍부하며 고혈압에 좋다.